

무한도전 ‘6인 완전체’ 다시 인기몰이



■ 국회 청문회급 검증 ‘멤버 변천사’ 보니

정형돈·노홍철 빈자리 채우려 광희·배정남까지 식스맨 찾기

장기 게스트로 ‘안티’ 최소화...양세형·조세호 합류시켜 안정

‘무한도전’은 MBC TV ‘간판 예능’이란 위상에 맞게 멤버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청자의 관심이 날마다 깊어진다. 특히 멤버 구성에 변화가 있을 시기엔 ‘시어머니’라고 까지 불리는 팬들이 나서서 국회 청문회 버금가는 검증을 벌일 정도다.

최근 개그맨 조세호(36)의 합류로 다시 정식 6인 체제가 된 것을 계기로 ‘무한도전’의 멤버 변천사를 되짚어본다. ◇ 6명 채우기 위한 필사의 과정...전진부터 조세호까지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 등 파일럿 프로그램에 가까운 시절을 거쳐 2006년부터 정식으로 뜻을 올린 ‘무한도전’은 첫 방송부터 함께한 유재석(46), 박명수(48), 정준하(47), 하하(39) 등 4명 외에는 멤버가 계속 변했다.

큰 줄기는 ‘6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무한도전’은 팀별 대결 콘텐츠가 많은 만큼 멤버가 적은 수인 것이 프로그램 진행에 유리하다. 또 10년 이상 프로그램을 끌어오다 보니 6명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제작진에게 부담이다.

2006년 첫 방송 당시에는 원년 멤버 4명 외에 정형돈(40)과 노홍철(39)이 있었다.

첫 멤버 변동은 2008년 2월부터 하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을 때로, 당시 빈자리는 가수 전진(38)이 채웠다. 또 2009년부터는 ‘카메오’였던 그룹 리쌍의 길(41)이 본격적으로 합류해 처음으로 7인 체제가 됐다. 그러나 전진이 공익근무요원 복무 전 허리디스크 치

료를 위해 같은 해 10월 하차, 다시 6인조가 됐다. 이때부터 2013년까지 프로그램은 탄탄대로를 걸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4년 4월 길이가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고, 이어 11월 노홍철도 같은 문제로 퇴장하면서 ‘무한도전’은 처음으로 5인 체제가 됐고 종종 풍파도 찾아왔다. 이후 2015년 4월 ‘식스맨 특집’으로 제작진 아이들의 광희(30)가 합류하며 겨우 6인 체제를 재건했지만 같은 해 8월 정형돈이 불안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면서 또 5인조가 됐다. 이 자리는 2017년 양세형(33)이 게스트 형식으로 출연하며 채웠지만, 그해 3월 광희가 입대해 또 공석이 생겼다.

이후 양세형이 자연스럽게 고정멤버가 됐고, 프로그램에서 그를 정식멤버로 따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김태호 PD가 인터뷰에서 고정멤버라고 밝혔다.

그렇게 5명을 채우고 남은 한 자리는 배우 배정남 등 게스트로 채워졌다. 특히 배정남은 독특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가 새 멤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았지만 이때도 역시 일부 팬의 ‘비토’는 존재했다. 결국 마지막 자리는 최근 조세호의 몫으로 돌아갔다.

◇ 장기 게스트로 검증→합류...6명 중 5명 전문 예능인 최근 ‘무한도전’의 멤버 총원 패턴을 보면 ‘관찰은’ 예능인을 게스트로 장기 출연시키다 자연스럽게 정식 멤버로 채택하는 식이다. 양세형과 조세호가 모두 그랬다.

그동안 걸음이 빨랐을 때마다 팬들 사이에서 새 멤버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고,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자

의와 관계없이 가혹한 평가에 시달렸다.

이에 제작진은 아예 공개 오디션 형식의 별도 특집을 마련해 광희를 선발하는 등 ‘안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부작용은 늘 있었다.

제작진은 고민 끝에 제는 있어 보이는 인물을 오랜 기간 게스트로 활용해 시청자들이 친숙해지도록 한 뒤, 자연스럽게 고정멤버로 합류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호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무한도전’에 꾸준히 얼굴을 비쳐왔다.

최근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6명 멤버 중 5명이 전문 예능인이 됐다는 것이다. 하하가 본업이 가수이기는 하지만 ‘무한도전’ 뿐만 아니라 SBS TV ‘런닝맨’ 등 예능에서 더 활약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그도 예능인이라 다를 없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7주간 휴식, 그리고 MBC 파업으로 인해 연이어 장기 결방을 했다. 프로그램 안정을 위해 기존 멤버들과 합이 좋으면서도 안정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예능인들을 위주로 발탁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세호의 합류에 대해서는 제작진은 13일 “조세호 씨가 보여준 멤버들과의 재밌는 조화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조세호 씨와는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싶었으나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가족이 되는 데 오래 걸린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하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마지막 앨범이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죠”

김동률 ‘답장’ 7개 차트 1위 기록

싱어송라이터 김동률(44)의 새 앨범 ‘답장’이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공개된 앨범의 타이틀곡 ‘답장’은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멜론, 지니, 솔라뮤직,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 7개 차트 정상에 휩쓸었다.

이 앨범은 김동률이 6집 ‘동행’ 이후 3년 3개월 만에 발표하는 앨범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 배우 현빈의 ‘답장’ 뮤직비디오 출연, 이소라의외의 듀엣곡 수록, 유명 디자이너 아재와의 앨범 재킷 참여 등으로 관심을 모았다.



‘답장’에는 ‘답장’과 이소라가 피쳐링한 ‘사랑한다 말해도’를 비롯해 ‘문라이트’(Moonlight), ‘연극’, ‘콘택트’(Contact) 등 5곡이 수록됐다. 김동률이 5곡을 수록한 앨범을 내는 것은 1997년 전람회 시절의 ‘졸업’ 앨범 이후 처음이다.

김동률은 1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꽤 오래전부터 새 앨범을 만들 때마다 ‘이 앨범이 은퇴 앨범이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어느덧 제가 데뷔한 지 25년이 되어 간다”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1993년 대학가요제에서 서동욱과 함께 전람회로 대상을 받은 뒤 가요계에 발을 디뎠다.

이어 지난달 세상을 떠난 사이니의 종현을 떠올린 듯 “얼마 전 아직 어리고 가까운 후배 한 명을 떠나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음악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잘 늙어 가는 모습,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도올 김용옥, 토론프로그램 진행

29일부터 MBC 파일럿 프로그램 ‘도올 스톱’ MC

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MBC TV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다.

14일 MBC에 따르면 도올 김용옥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월~목요일 자정경부터 약 20분간 방송하는 파일럿 토론프로그램 ‘도올 스톱’의 MC로 나선다. MBC는 시럽 방송 후 정규 편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BC 관계자는 “‘도올 스톱’에서는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며 “도올 선생과 함께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해보자는 취지다. 토론 형태로 게스트 초대, 패널과 3자 토론 등 다양하게 시도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재)	50 투깝스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저글러스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00 12 MBC 뉴스 20 투깝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킹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신년특집 파워인터뷰 (소설가 조정래편)(재)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이카데미	50 VJ 특공대	3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20 헬로키티! 아하! 동물탐험대 2	00 뉴스브리핑
3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사이닝스타	
4	00 4시 뉴스집중		05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0 팔도탐상 스페셜 (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산(재) 30 일렬하는 남자들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퀘스(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탐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퀘스들 5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체보자들	35 투깝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0 특집다큐 기록의 가치 편역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경	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2부
12	00 이웃집 할스(재) 50 생활의 발견	35 사랑의 가족 (재)	05 살맛나는 세상	30 나이트라인

EBS1		1월 15일(음 11월 29일 丁未)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재민족 아틀라스 (삼국지 삼국정립)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00 우주탐험가 잭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이것이 진짜 스페셜) (순댓국과 매운 홍합볶음) 인도양으로 떠나는 겨울 휴가)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순댓국과 매운 홍합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문드(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똑똑맨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콩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덩 유지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호기심 소녀 도트 17:45 띠띠보 띠띠보 18:00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 1~4 19: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9:30 EBS 뉴스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이것이 진짜 스페셜) (순댓국과 매운 홍합볶음) 인도양으로 떠나는 겨울 휴가)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알수록 신비한 남미 지질 이야기) 대자연의 조각가 빙하) 21:30 한국기행 (우리 은퇴하면 뭐할까요 1부) 우리의 겨울은 뜨겁다)
07:00 허풍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킹스 08:00 덩동덩 유지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트레팔리오 4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5일(음 11월 29일 丁未)	
子	48년생 절실히 필요하다면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60년생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72년생 형제에 지혜 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84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17	午	42년생 역할을 잘 한다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4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66년생 편이해질 수도 있다. 78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90년생 뽀리만 하려 하지 말고 정확히 행하라. 행운의 숫자 : 56, 41
丑	49년생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생기면 급변할 될 수도 있다. 61년생 하나가 이뤄지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겠다. 73년생 상호간에 발전을 이끌 것이다. 85년생 이따저 조처가 곧 자신을 어렵게 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92	未	43년생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정황이다. 55년생 시작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67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태개할 수 있다. 79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91년생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행운의 숫자 : 61, 37
寅	50년생 총명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은 수밖에 없다. 62년생 실제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74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86년생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18, 21	申	44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라 한다. 56년생 지속 가능한 것에 주력함이 무방하다. 68년생 여건이 불리하니 참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 80년생 증중의 폐해는 의외로 대단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15
卯	51년생 불합리한 점이 보일 것이니 속히 바로 잡아라 한다. 63년생 복작단단한 시행착오 후에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75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잡아내야만 하느니라. 87년생 소신과 자신감은 좀 더 나은 결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65, 06	酉	45년생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57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이 놓여 있다. 69년생 진솔함이 생산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81년생 돈을 보고 도리깨질을 즐기고 있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41, 24
辰	52년생 ऐ리한 인목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보배를 얻을 수도 있다. 64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88년생 과거에 알고 있었던 바대로 인식한다면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58, 66	戌	46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니라. 58년생 힘들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라. 70년생 필요하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82년생 꼭 다녀와야 할 곳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71
巳	53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65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77년생 드디어 길잡이 비춰주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실행하라. 89년생 안배를 잘 해나간다면 성취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9, 94	亥	47년생 허심탄화한 자기 성찰 속에서 발전이 보일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함이 맞다. 59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71년생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정리된다. 83년생 상황이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1, 01